

1 동해어항사무소

관광 제저 종합어항으로 개발 부실요인 사전제거 건설시공 확립

- 16개항에 382억60백만원 투자 -



김윤수
동해어항사무소장

강원도에서부터 울릉도를 포함하여 부산까지 동해안 일대 제1·3종어항을 관장하는 동해어항사무소는 금년도 투자방향을 수산항 등 계속투자 5개항의 조기완공을 위한 집중투자와 건설시공에 있다.

'97년도 어항건설 예산액을 농특회계 250억원, 일반회계 132억60백만원, 합계 382억60백만원으로 '96대비 20억원이 증가 되었으며, 계속 투자항 7개소 287억원, 보수유지항 9개소에 95억60백만원이다.

주요 어항별 시설계획을 보면, 강원도 강릉시 및 속초시 등을 배후지로 한 안목항과 수산항은 각각 55억을 투입하여 방파제를 계속 시설할 계획으로 있으며, 완공시 관광어항으로서의 기능과 도시민에게 신

선한 활어의 공급 및 휴식공간으로서의 기능을 담당하도록 할 계획이다.

앞으로 동해안의 어항은 어선의 안전 정박 및 어획물의 원활한 양육이라는 기본기능뿐만 아니라 동해안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을 유치하여 관광, 레저산업을 망라하는 종합어항으로서 거듭나기 위해 배후지의 주차장 등의 연계시설 확보가 절실히 필요한 실정으므로 어항부지의 기능시설중 주차장을 최대한 확대하는 등 어항이 지역사회 정주권 차원의 복합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어항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그동안 계속 투자한 경북 울진군 소재 사동항은 '96년 이월된 진입도로 정비를 실시, 금년에 전 공사를 마무리할 예정이고, 부산 기장의 대변항은

50억원을 투입 동방과제 및 제작장 부지활용을 위한 호안 공사를 실시하며, 울릉도 소재 현포항은 '95년도 수립된 기본 시설계획에 따라 동방과제를 축조하며, 저동항은 정비계획에 의한 남방과제 보강과 주민의 염원인 물양장 축조공사를 실시할 계획이고, 경북 영덕군 축산항은 35억원을 들여 북방과제를 축조할 예정이다.

그리고 '96안전점검 결과 보강이 필요한 대진(경북)항에는 방과제 및 호안 보강공사를 금년에 시행하고, 경북 영덕군 강구항은 어민의 숙원사업이었던 물양장 개축공사를 시행하는 한편 읍천, 방어진, 금진, 죽변항 등은 기본개발계획에 따라 계속적으로 보강공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97년도 어항공사 추진방향으로서는 첫째, 태풍기 이전에 주요 공종을 마무리, 피해에 대비하기 위하여 태풍 진로권 및 예산규모가 큰 6개항을 1 단계로 묶어 우선 설계하여 조기 발주토록하며 둘째, 시공감독을 철저히 하고 기술지도 및 교육강화로 공사관계자의 책임의식 제고와 예비검사등 부실요인을 사전에 제거하여 건설시공을 확보하고 셋째, 공사현장의 안전점검 강화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토록 할 계획이다.

어항공사의 건설시공을 위하여는 첫째, 전면책임감리를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인 현포, 수산, 대변, 안목항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둘째, 시공자에 대한 책임의식 제고를 위한 간담회 개최와 건설시공을 위한 소장 친서를 2/4분기 중에 시공사 대표에게 발송할 계획이며 셋째, 품질관리 철저, 적기 검사시험실시, 예비준공검사 등을 실시하여 건설시공에 만전을 기할 것이다.

끝으로 '94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어항시설물 안전점검을

더욱 강화하여 이미 안전점검 결과 보수보강이 필요하여 개발계획이 조정된 항에 대해서는 취약부분을 계속 보강해 나가고, 점검시 새로이 도출된 취약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요구 및 대책을 강구해 나가 어항구조물 안전에 만전을 기할 것이며, 어항시설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어항관리 유관기관간의 협의회를 개최 어항이용의 활성화를 기하고 무단 어항시설물의 단속을 강화하도록 지도해 나갈 것이다. ㉠

'97 항별 투자예산

(단위: 백만원)

구분	항명	사업비	구분	항명	사업비
계	16개항	38,260	보수보강	9개항	9,560
계속투자	7개항	28,700		대진(강원)	200
	수산	5,500		금진	490
	안목	5,500		죽변	580
	축산	3,500		대진(경북)	1,500
	현포	5,500		강구	900
	대변	5,000		양포	390
	오산	2,200		읍천	1,500
	구산	1,500		저동	2,500
					방어진